

# 은행권 “비혼족 잡자”... ‘1코노미’ 맞춤형 금융상품 봇물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

1인가구·비혼족 지속 증가 전망  
절약 돕거나 소비 맞춤형 등 다양

주요시중은행이 ‘1인가구(1코노미·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금리혜택 등 1코노미에 특화된 상품으로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

이는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222만가구에서 2017년 562만가구로 152%나 증가했다. 또 일반가구원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남자의 경우 30세, 여자의 경우는 27세로 나타났다. 비혼족의 증가로 1인가구의 비율 또한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인가구 절약 돕는 적금 상품

향후 증가할 지출을 고려해 절약이 일상화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그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이에

(1인가구 맞춤형 적금상품)

시중은행	상품명	적립방식	최고우대금리	우대조건
우리은행	위비 잔테크 적금	-	1.30%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 ▲금리우대쿠폰 등록 ▲위비특 및 위비 특알림 이용고객 ▲잔테크 적립플랜 횡수 충족
신한은행	술편한 작심 3일 적금	-	2.20%	▲자동이체 등록 요일 수에 따라 0.1%씩 가산
하나은행	오늘은 얼마나? 적금	-	2.45%	▲개인 SNS로 적금 추천메시지 등록 ▲‘HAI뱅킹’으로 12회 이상 혹은 24회 이상 납입 ▲하나멤버스 회원이 적금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하기로 동의할 시
KB국민은행	1코노미 스마트적금	-	2.75%	-

/자료=각사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1인 가구의 절약을 돕는 다양한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위비 잔테크 적금’을 운용 중이다. 52주간 매일 또는 매주 저축액을 늘려갈 경우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일, 매주 티끌이라고 생각했던 푼돈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태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추천해줄 수 있는 쓸쓸한 적금상품이

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술편한 작심 3일 적금’을 통해 절약 정신이 취약해질 수 있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요일별·소액 자동이체, 6개월 만기로 상품을 설계해 많은 고객이 적금을 부담없이 납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연 1.9%, 최대 연 2.2%의 금리를 제공한다. 1인 가구 스스로 재무계획을 세우고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이달 기준 13만6434좌가 팔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로족이 많은 1인가구 사이에서도 절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 상품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나를 위한 경제활동, ‘미코노미(Meconomy)’ 상품도

대부분의 소비활동이 ‘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1인가구 특성상 이에 맞춘 금융 상품도 다양하다.

우리은행은 여행을 즐기는 1인가구 위해 ‘우리 여행적금’을 운용하고 있다. 1

년 기준 기본금리 연 1.8%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조건 등 충족 시 최대 연 4.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6.0%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제주항공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제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적금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뿐만 아니라 항공권구매 및 적립, 쇼핑할인까지 적용돼 여행을 즐기는 1인가구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Self-Gifting (셀프-기프팅) 적금’ 상품을 통해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했다.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선물 이미지를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적금을 납입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결집한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 포함해 최대 연 1.8%를 제공한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위험물질 운송차량 시범운영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 내일부터 민관합동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패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수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오는 13일 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운영 체계. /국토교통부

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우선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한다.

또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행위가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

로 표출되는지를 확인한다. 국토부 손병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올 상반기,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나온다

### 요금 20~30% 할인... 교통비 부담↓ 통근·통학 가능한 단거리 왕복 이용

올 상반기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출시된다. 요금의 20~30%가 할인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행정예고는 오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프리패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신화 기자

### 금융위원회

#### 내일 신용정보법 공청회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는 데이터전문기관·전문신용정보사를 설립해 신용정보 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와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발제한다. /나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 순익 1조7643억 ‘호조’

### 전년비 17% 증가... 고른 성장세 보여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1조7643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다.

기업은행은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7643억원으로 전년(1조 5085억원)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5110억원으로, 지난해(1조 3141억원)보다 15% 증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견조한 자산 성장과 건전성 관리를 통한 수익력 강화, 자회사의 고른 성장이 실적 호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9조2000억원(6.5%) 증가한 151조6000억

원을 기록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22.5%)을 유지했다.

대손충당금은 지난해보다 9.7% 개선된 1조 4553억원으로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이 대손충당금을 규모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누적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개선된 0.59%, 고정비하여신비율은 0.04%포인트 낮아진 1.32%를 기록해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역할은 물론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내실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신한금융, 토스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 예비인가 신청 참여... 추진단 계획

신한금융그룹이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11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협력해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및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혁신적인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한금융이 보유한 금융부문의 노하우와 안정성, 자금력에 토스가 가진 혁신성, 창의성을 더해 ‘혁신



서울 신한은행 본점.

적·포용적’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양사는 예비인가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사의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상미 기자 smah1@